

위례신사선 조속 추진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분담금 제도 개선 건의안

(유정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873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5월 27일
발 의 자: 유정인, 김규남, 김영철, 김원중, 김재진,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상혁, 박 석, 박영한, 유만희, 허 훈, 홍국표, 황유정 의원(20명)

1. 주문

- 위례신사선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위례신도시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자 광역교통시설 분담금과 이에 따른 이자수입에 대한 제도를 개선 할 것을 강력히 건의함

2. 제안이유

-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에서 삼성역을 거쳐 신사역까지 총 연장 14.8km의 노선으로 위례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하나이고, 완 공시 위례신도시와 강남권역을 연결함에 따라 서울동남권의 주요한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매김 할 철도노선임
- 위례신사선은 국토교통부에서 '14년 5월 위례 택지개발사업 광역교 통개선대책을 변경할 당시 '21년도까지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18년 11월 민자적격성조사가 완료되어 '20년 1월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 정되었음에도 '24년 4월 현재까지 착공도 하지 못해 '13년말 부터 입주를 시작한 위례신도시 주민의 교통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 정임

- 위례신사선 총사업비 1조 1,579억원 중 위례 택지개발사업 조성원가에 반영된 2,300억원을 포함한 광역교통시설 분담금은 총 3,100억원으로 현재까지 미집행된 분담금으로 인한 이자수입만 해도 상당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처리규정이 없고,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에도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례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상 위례신사선의 총사업비 변동과 관계없이 정액부담하도록 확정되어 있다는 사유로 이자수입을 추가 사업비에 사용할 수 없어 분담금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 한편 정부도 비상경제장관회의('23.12.5.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통해 신도시 등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논의하였고 세부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내 광역교통 계정을 별도로 신설하여 각 지구별로 분산되어 있고 본 개발사업과 구분 없이 관리되는 교통대책 사업비를 통합하고, 분양 완료 후 미집행 또는 미착수 교통대책 사업비는 LH 재무여건을 고려해 연차별로 분납 적립하겠다고 하였음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위례신사선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위례신도시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개선 할 것을 강력히 건의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다. 기타 : 없음

4. 이송처

- 국회,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시

위례신사선 조속 추진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분담금 제도 개선 건의안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에서 삼성역을 거쳐 신사역까지 총 연장 14.8km의 노선으로 위례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하나이고, 완공시 위례신도시와 강남권역을 연결함에 따라 서울동남권의 주요한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매김 할 철도노선입니다.

위례신사선은 국토교통부에서 '14년 5월 위례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할 당시 '21년도까지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18년 11월 민자적격성 조사가 완료되어 '20년 1월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었음에도 '24년 4월 현재까지 착공도 하지 못해 '13년말 부터 입주를 시작한 위례신도시 주민의 교통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위례신사선 총사업비 1조 1,579억원 중 위례 택지개발사업 조성원가에 반영된 2,300억원을 포함한 광역교통시설 분담금은 총 3,100억원으로 현재까지 미집행된 분담금으로 인한 이자수입만 해도 상당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처리 규정이 없고,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에도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례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상 위례신사선의 총사업비 변동과 관계없이 정액부담하도록 확정되어 있다는 사유로 이자수입을 추가 사업비에 사용할 수 없어 분담금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도 비상경제장관회의('23.12.5.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통해 신도시 등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논의하였고 세부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내 광역교통 계정을 별도로 신설하여 각 지구별로 분산되어 있고 본 개발사업과 구분 없이 관리되는 교통대책 사업비를 통합하고, 분양 완료 후 미집행 또는 미착수 교통대책 사업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재무여건을 고려해 연차별로 분납 적립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위례신사선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위례신도시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 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입주민이 부담한 광역교통시설 분담금을 “광역교통 계정” 신설 등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하나, 사업시행자는 광역교통시설 분담금으로 발생한 이자수입은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사용하여야 한다.

하나, 위례신사선 총사업비의 사업시행자 부담액에 대한 정액부담을 폐지하고 광역교통시설 분담금 이자수입을 반영하여야 한다.

2024. 5.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일동